

안녕하세요. Biblical Theology Seminary(BTS)에 재학 중인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3년 4월에 처음 미국에 와서 Biblical의 ACS (Advanced Cultural Studies) 1년 과정을 마치고 2015년 1월 현재 MA.M (Master of Arts in Ministry)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 미국 유학을 결심했을 때, 미국에서의 삶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되었던 부분은 단연 '영어' 였습니다. 그래서 ESL과정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창훈 교수님을 통해 ACS과정이 있다는 아주 반가운(?)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ESL과정과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ESL과정과는 너무나 다른 점이 많아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ACS는 일반 ESL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영어훈련 과정입니다. 제가 느꼈던 다른 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본과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줍니다.

사실 미국에 오기 전 저에게 있어 가장 큰 부담은, '과연 내가 본과 수업에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ACS과정이 이런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사실 일반 ESL 과정은 그야말로 영어만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ESL 과정을 다 마친다고 해도 본과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SL에서 배운 내용(일반 영어)과 본과에서 저희가 배우게 될 내용(신학에 관련된 영어)과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ACS의 총 3개의 Level을 거치고 나면 본과 수업에 대한 자신감, 아니면 적어도 부담은 확실히 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설명에 있습니다.

2. 성경+신앙 영어를 배웁니다.

ACS 과정은 성경과 우리가 앞으로 듣고 말하게 될 신앙(+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영어로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Toefl 단어나 문법을 배우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배우

고, 사용하게 될 용어는 주로 성경 or 신앙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가 주로 만나게 될 사람들도 교회라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ACS 과정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배우기 때문에 효과적인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ACS 과정을 통해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분들은 일반 영어강사가 아니라, 실제로 목회 현장 속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 혹은 신학교 교수님들입니다. 따라서 그분들과 1:1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유학생화에 대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일반 ESL과정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3. 미국생활에 대한 빠른 적응을 돕는 과정입니다.

ACS과정은 단순히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역동적이고 앞으로의 사역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해 주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강의를 통해 저희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서 직접 미국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도록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에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사역을 배우고, 이 과정을 통해 소중한 동역자/이웃들을 얻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따라서 ACS 과정이 앞으로 여러분의 사역에 중요한 자원들을 제공해 주리라 확신합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점!

1. 가능하다면 학교 안에서 만큼은 동기들 사이라 할지라도 (사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영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걸 ACS 과정에 오시는 분들 사이에서 반드시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ACS과정에 오시는 분들이 100% 한인들이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수업 중에 말하지 못한 답답한 마음 때문에 주로 한국말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또한 물론 저 역시 그랬고 지금도 그렇

습니다 ^^; 하지만 이 부분이 저 스스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때에는 나의 부족한 영어실력이 들통 난다고 생각해서 창피하고, 남들과의 비교의식이 생겨서 일부러 한국말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결국 영어를 배우는 속도가 더딜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ACS 과정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어렵고, 창피하고, 안 되고, 답답하시더라도 학교 안에서만큼은 영어로 대화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 영어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은 배우고 오시거나, 아시더라도 복습을 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이 말을 들으실 때, 기초적인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주 기본적인 문법 + 아주 간단한 자기소개 + 외국인을 만났을 때 복잡한 말은 못하더라도 자신 있게, 웃으면서 Hi or Hello or How are you?를 외칠 수 있는 자신감'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거나 이미 습득하신 분이라면 정말 ACS를 통해서 영어실력이 눈에 띄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주 기본적인 영어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ACS 과정을 힘들어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 목사님들이 배려해 주시지만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적인 영어는 한국에서 꼭 마스터해 오시면 ACS 과정이 여러분의 유학생들과 영어실력에 날개를 달아주리라 확신합니다.

ACS과정을 통해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유학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